

豫算審議에 있어서 國會 常任委員會와 行政部處間的 상호작용

(第13代 國會 : 1988~1992) — II **

姜 信 澤*

.....〈目 次〉.....	附 錄〈表 1〉~〈表 10〉
(제 1 부 개요)—이번호 게재분	(제 II 부)—이번호 게재분
I. 序 論	IV. 常任委員會 會議錄 分析(뒷부분)
II. 豫算案 豫備審査의 脈絡	V. 要約 및 結論
III.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	附 錄
IV. 常任委員會 會議錄 分析	

〈要 約〉

筆者는 「豫算審議에 있어서 國會 常任委員會와 行政部處間的 相互作用-豫算的 考察」이라는 글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이번 연구는 그 후속연구로서 지난번 글에서 印象과 推定을 근거로 서술했던 부분들을 常任委員會의 會議錄을 분석하여 보완하였다.

우리나라 國會의 豫算審議에 대한 그동안의 學者나 實務者들의 비판은 國會가 豫算審議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政策形成과 行政監督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하여 필자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와 같은 비판으로부터 處方을 도출하기 이전에 豫算審議의 실태를 좀더 자세히 묘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豫算審議의 기능이라고 일컬어지는 政策形成과 行政의 監督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政治的 役割과 行政的 役割間的 관계라는 시각을 도입하여 政策形成이라는 면에서는 霧圍氣設定(傳達)과 具體的 政策, 仲裁과 企劃으로 나누어서 특징을 찾아 보았고 行政監督이라는 면에서는 差別과 公平性, 政治的 統制와 裁量으로 나누어서 특징을 찾아 보았다. 그런데 行政部處는 豫算案 提案을 통하여 이미 具體的 政策形成, 企劃, 公平性 및 裁量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고 이것에 대하여 常任委員會가 어떻게 霧圍氣設定, 仲裁, 差別 및 政治的 統制라는 政治的 役割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하여 行政部處가 答辯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어떻게 反應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相互作用의 특징을 찾아 보았다.

*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教授

** 이 연구는 「199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대우)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지원제한관계로 2회에 나누어서 발표하는데 이 논문은 2회중 2회분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13대 國會 定期國會의 4개 委員會의 會議錄만을 분석하였다. 즉 1988~1991年度 定期國會의 教育體育青少年(文教公報/文教體育), 商工, 農林水產 및 建設의 4개 常任委員會의 豫算案 豫備審查 會議錄만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計量的으로 내용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특징을 나타내는 發言들을 부각시켜서 묘사하였다.

政策形成面에서 볼 때 閣僚의 豫想보다는 미흡하지만, 위원들에 의하여 政治的 氛圍氣의 변화가 행정부처에 전달되고 있고 위원들의 仲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즉 所管部處의 豫算의 增額을 전제로 한 질의가 많고 사안에 대하여 支援的, 同情的 主唱者의인 경우가 많다. 매우 무질서하게 보이는 質疑·答辯過程이지만 委員과 行政部處間에 중요한 相互學習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行政監督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상과는 달리 出身地域이나 職能分野에 대한 差別的 擁護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農林水產委員會와 建設委員會에서는 이와 같은 옹호성 발언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裁量을 통제하기 위하여 非理, 不法, 越權등을 추궁하고 견제하려는 위원들의 노력은 엿볼 수 있다.

行政部處側의 答辯은 공손하고 정중하게 회피하면서도 때로는 수긍하고 시인하는데, 결국은 增額이나 「復活」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관계유형을 보면 豫算編成段階에서 行政部處가 얼마간의 불리기를 하고 經濟企劃院이 삭감하며 豫算審議過程에서 常任委員會가 일부를 「復活」시키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가 다시 總額은 政府原案에 가깝게 수정하고 事業內容은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 결과가 「반영」되도록 政府原案을 다소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常任委員會 會議錄 分析

- A. 文教公報委員會—文教部/文教體育委員會—文教部/教育體育青少年委員會—教育部 (前號계재)
- B. 商工委員會—商工部, 工業振興廳, 特許廳 (前號계재)
- C. 農林水產委員會—農林水產部, 農村振興廳, 山林廳, 水產廳

.. 1988年度 定期國會(第144回 國會)의 1989年度 豫算案審查³⁰⁾

(1) 概要

1988년도 農林水產部, 農村振興廳, 山林廳, 水產廳들의 豫算案에 대한 農林水產委員의 審査는 1988년 11월 7, 8, 9, 11일에 있었다. 당시는 소위 「與小野大」라는 4당체제하에서 國會가 5共清算을 위한 각종 特別委員會의 聽聞會를 개

30) 第144回 國會 農林水產委員會 제 6 차(1988. 11. 7), 제 7 차(1988. 11. 8), 제 8 차(1988. 11. 9), 제 9 차(1988. 11. 11) 회의록

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豫算過程에서는 政治的 雰圍氣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적었던 것 같다.

豫算審議 기간중에는 다수인 野黨委員들의 發言數도 많다. 다만 타 연도와 비교할 때 豫算案 提案說明 도중에는 委員들의 질문이 적었던 셈이다. 農漁民 後繼者資金, 水産分野의 前職軍人任命問題, 畜産支援事業, 農村指導職 公務員의 指導手當등이 비교적 많이 거론되었는데 行政部處와 委員會가 협조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豫算審議였다. 그래서 趙圭一 企劃管理室長은 概要說明후에

「...끝으로 기說明 올린 바 대로 농업용수개발事業費가 내년도 豫算에는 금년도 實行 豫算보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委員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主唱者의인 委員들의 요구가 가세하여 計數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결국 農林水産部 및 傘下機關의 豫算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1,300억을 더 增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일 조 십천억원이라는 방대한 豫算을 3일간에 審議했다는 것도 아마 國會 農林水産委員會가 존재하고 있는 역사상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자찬인지 자탄인지 모르는 말을 하는 委員도 있다.

(2) 政策形成

가. 雰圍氣 傳達

전이는 감히 지론조차 할 수 없는 말들이 저침없이 나오는 것에서 政治的 雰圍氣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예컨대 朴亨午委員(平民)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水産廳 반쪽이후에 廳長이 7명 내지 8명이 군출신이고 水協의 會長 및 副會長이 16명, 漁船協會가 7명, 漁船技術訓練所가 5명, 釜山共同漁市場이 4명, 遠洋協會는 7명, 遠洋協會는 자기들 업자끼리 내야할 會長을 水産廳에서 내고 있습니다. 韓國冷蔵, 마사회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農林水産部長官은 앞으로 이와 같은 무능하고 水産業에 일가견도 없는 軍人을 大量 起用할 것인지? 만일 起用을 한다면 그것은 自殺直前に 처해 있는 沿岸漁民을 구제할 정의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水産團體를 전부 해체하고 國家豫算을 절약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長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키조개 보호수면관리문제에 관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느니 고추, 당깨, 땅콩등의 실상이 「유통홍보내용보고」와 다른 경우에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느니 하고 위협하는 委員도 있다.

물론 異見이나 代案을 가진 委員도 많다. 李熙天委員(平民)은 「먼저 營農漁

資金等 農林水産關係의 각종 여신금리의 인하문제와 단기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마땅히 관계부서인 財務部長官에 물어야 할 사항이지만 우선 關係長官에게 묻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묻는다는 것이다.

二. 중에는 아주 荒唐無稽한 代案도 있다. 徐敬元委員(平民)은 통일버는 「독재자들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종자를 들여온 것」이라고 하더니 「…취가 영양가가 많습니다. …삼천리 강산에 널려 있는 이 쥐를 어떻게 영양학적으로(유전공학적으로) 개조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한번 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전부 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있는 환경을 이용해야지 공연히 강대국들이 바람잡어 넣어서…」라고 말하였다.

나. 仲 裁

常任委員들은 行政府가 수립한 事業計劃을 주어진 한도액내에서 仲裁・調整하기 보다는 대체로 增額을 희망하면서 農林水産部가 더 적극적으로 豫算確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許在弘委員(民主)은 「豫算이 보니까 너무 이터 가지고 되겠다…아주 많이 불충분한 것 같네요. 대폭적으로 增額해야지…」라고 하고 李起彬委員(民主)은 「長官을 위시한 우리 農水産委員들도 豫算確保에 총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등 增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도 常任委員들이 事業의 主唱者의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혹 國會委員은 豫算은 增額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國庫의 保護者(guardian)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이도 있다. 즉, 李鍾根委員(共和)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國會委員들은 豫算을 增額시키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털어 주기 위해서 깎는 것이 주 임무가 되어 있어요. 長官을 협조하고 지원하고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豫算은 필요없는 것은 깎아야 합니다」

라고 하며 小委員會에 참여해서도 項目별 토의를 거쳐 가감조정하지 못한 것을 못내 서운해 하고 있다.

나. 答 辯

각 부처의 答辯은 委員들의 質疑에 맞장구를 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委員들의 지적을 대체로 수긍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趙圭一 企劃管理室長이 豫算이 감소된 부분에 언급하면서 「이 점유의해서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하고 尹勳煥長官은 「이번 豫算審議過程에서 委員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豫章復活을 위해서는 委員의 質疑에 대하여 答辯하는 過程에서 당초 經濟企劃院에 요구했던 내용을 밝히기도 한다. 李東培水産廳長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企劃院에 요구하기를 <렐리콥터> 2대 구입비 4.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기어코 審議過程에서 삭감당했습니다」

委員과 政府側間에 협조적인 것만은 아니다. 李相玉委員(平民)은 정부측의 答辯態度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다. 「回避性 答辯 내지 合理性 答辯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수립안은 내놓지 않고 數字놀음에 回避性 答辯만 하니…현 축산국장도 그 答辯이 마음에 와닿는 애긴가? 그것이 아닙니다」

(3) 行政監督

가. 差別

수차 언급한 바와 같이 國會議員이 出身地域이나 職能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濟州出身 委員이 地域과 관련된 명시적인 發言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農業, 林業, 畜産業, 水産業등 分野別로는 개인적 관심과 경험을 바탕으로 利益擁護의인 發言을 하고 있다. 李相玉委員은 質疑에 앞서 일장 연설을 하였다. 「독재치하 5공시절도…이 나라 농민들은 정권유지의 도구가 될 수밖에 …89년도 農林水産部 全體 豫算은…이중 畜産事業이 차지하는 豫算은 전체의 2.2%…축산지원事業은 전체 豫算의 0.1%…이유는?」이라고 묻고 「本委員은 참으로 분노에 가득찬 양축농민들의 채찍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두번이나 반복하였다.

行政의 감독에 있어서는 委員 個人的 경험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李鍾根委員은 「내가 농사지어 보니까 규산질비료 잘 듣지도 않던데 이것을 끊으면 어느 업체가 곤란하니까 그 업체를 살려주는 뜻에서 정치성이 가미된 것, 이것 없애 버려라.」라고 하였다.

나. 政治的 統制

疑義, 不正, 不法, 越權을 牽制하는 것도 豫算審議의 중요한 기능이다. 앞에서 언급한 水産分野의 軍出身人事問題, 키조개보호수면관리문제의 불법가능성, 서울시장과물시장문제등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李相玉委員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1년도 쇠고기 수입을 3만 5천톤에서 3만 6천톤을 수입…보완대책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안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항상 畜産政策이 잘못되지만 하면 축산국장…가지 치는 이런 것을 능사로 이것을 代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양해 없이 언론에 쇠고기 수입이 보도된 것은 農林水産委員들을 허=아비로 보는 것으로 단언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 答 辯

이제 시인하거나 수긍하는 모습으로 答辯을 하는데, 자칫 자세하게 說明하다 보면 공연히 꼬투리가 잡히기도 한다.

「勤換長官이 農漁民後繼者事業이 靑少年의 農村定着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기대했고 「지원농가 29,999호중 44호가 不實하게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答辯하자 朴亨午委員은 「44호가 부실한 道가 어느 道」냐고 묻고 長官이 別途 報告하겠다고 答辯하자 朴委員은 「…長官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별도 小委員會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100호도 넘는데 만일 조사해서 44호 이상이 된다면 어디 책임을 지겠습니까?」라고 추궁하였다.

「長官이 水産分野가 다른 分野에 비해서 軍出身이 많은 것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資源이 枯渴狀態에 있다는 것이지 軍出身이다 또는 軍出身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앞으로 朴委員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水産行政이나 또는 水産團體業務가 더 잘 되어서 沿近海水産이 진흥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하자 朴亨午委員은 「軍出身이 분명히 몰라요. 대포쏘는 사람이 무슨 水産業을 안다고 갖다가 沿岸漁民만 못살게 굴고 資源이 枯渴되고 어찌나 하…」라고 비난한다.

2. 1989年度 定期國會(第147回國會)의 1990年度 豫算案審查³¹⁾

(1) 概 要

1990년도 農林水産部등의 豫算案에 대한 農林水産委員會의 審査는 1989년 10월 26, 27일과 11월 6, 7, 10일에 이루어졌다.

農林水産委員會의 審査過程에서도 野黨委員의 發言회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豫算案 概要 說明途中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중복된 내용의 질문도 많다.

「한 農林水産分野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나머지, 事業의 主唱者가 되어 豫算額을 增額시켜 놓고 있다. 즉, 小委員會 委員長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저희 小委員會에서는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통해 제기하였던 豫算案 관련사항에 대하여 審議하였으며, 그리고 주요 事業別로도 깊이 있는 論議를 거친 다음 政府側과도 충

3) 第147回 國會 農林水産委員會 제 5 차(1989. 10. 26), 제 6 차(1989. 10. 27), 제 8 차(1989. 11. 6), 제 9 차(1989. 11. 7), 제 10 차(1989. 11. 10) 회의록

분히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0년도 農林水産部 豫算規模는 農漁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農業構造改善의 促進을 위해 전년대비 20.3%에서 30%이상은 增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 小委員會의 의견이었습니다.]

(2) 政策形成

이 委員會의 審議過程에서는 審議節次 자체에 관한 언급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審議方式과 관련하여 李鍾根委員(共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금 李熙天委員이 심도 있게 項目별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審議하는 그 過程을 우리 小委員會들이 여기 企劃室長과 하나하나 넘기면서 전부 찬반을 묻고 다루어서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專門委員이 정확하게 기록해 가지고 그리고 小委員會가 구성된 다음에는 그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計數調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雰圍氣를 반영하듯 農林水産部 豫算案에 대한 國會 專門委員의 보고가 끝나자 農漁村公社法이 제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豫算이 계상되어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朴泰權委員(民主)이 비판하기를 「...지금 立法도 안되어 있는데 豫算編成한 것이 너무하고, 그리고 專門委員이 검토를 이 정도로 이 석상에서 그렇기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는데 金鍾基委員長(民正)도 가세하고 있다.

「이 검토보고라는 것은 이 委員들이 검토보고를 들음으로써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검토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專門委員! 무조건 열거를 해서 그대로 그냥 대변해 주는 식의 그런 검토 보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제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또 豫決委에 관련된 發言도 있다. 辛再基委員(民正)은 水産廳에 〈헬리콥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過程에서 「작년에도 이것이 사실은 農水廳委員會에서 우리가 豫算을 추가했는데 豫決委에 올라가서 깎았는데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는 (水産)廳長님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다.

農林水産委員들이 豫算案 審査에서 事業의 타당성이나 중요성 그리고 산출방식을 따지는 근거도 다양하다. 또 質疑 內容도 다양하다. 어떤 委員의 질문은 무려 17개 項目에 걸쳐 있다. 이러한 질문들을 종합해 보면 質疑過程에서 豫算編成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때 사용하는 착안점은 다음과 같다.

- ① 前年度 豫算基準 減額項目
- ② 豫算配定の 계속성 및 충분성

- ③ 당초 계획대비 增額된 豫算項目
- ④ 事業計劃 대비 豫算配定 未達 項目
- ⑤ 豫算編成의 根據 및 妥當性이 不明確한 項目
- ⑥ 豫算配分의 地域間 分野間 衡平性
- ⑦ 國庫補助事業의 경우 國庫補助, 地方費 및 自費負擔의 比率問題
- ⑧ 長期的 政策과 관련된 豫算配分의 基本方向

이상과 같은 주안점을 가지고 豫算案을 審議한다면, 豫算審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審議期間을 너무 짧게 잡아 놓고서 그동안 豫算審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委員들의 質疑는 豫算支援의 擴大 및 增額의 必要性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만큼 主唱者가 되며 事業확대나 豫算增額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豫算配分의 公平성 또는 衡平성
- ② 政府支出 대상집단인 농어민의 부담경감
- ③ 事業의 早期達成의 필요성
- ④ 목표기간내 事業目標達成의 필요성

姜普性委員(民主)은 豫算增額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政策 下立體制(委員會—政府部處)의 主唱者의 협조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것은 國會가 알아서 해 줄 것 아니냐 하는지 몰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권할 사람이 소신을 가질 때 ㅅ야만이 우리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豫算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豫算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이와 같기 때문에 委員들은 行政部處와 企劃院과의 관계를 알고 싶어 한다. 朴泰權委員(民主)은 事業의 중요성이나 豫算增額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는 質疑에서 農林水産部 豫算 中 全額 削減된 關·항별 세부事業별 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政策質疑나 豫算質疑를 하면서 우리들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企劃院이 이렇게 문턱이 높은가 또 農水産部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 行政監督

地域이나 職能分野와 관련된 發言이 많지는 않으나 다양한 政策質疑 속에는 然히 그러한 문제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釜山市 水産振興院 舊敷地에 水産綜

合館 또는 博物館을 설립하는 문제, 충남 홍성군 보령지구 대단위 종합개발事業 내년 착공비, 水産 또는 畜産部門에 대한 豫算의 과소책정문제등이 거론되기도 하고 農地組合費 支援問題가 제기되기도 한다.

行政府가 越權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農漁村公社法이 제정되기도 전에 豫算을 編成할 수 있으나 하는 것으로서 政治的 統制를 유지하려고 한다.

(3) 答 辯

答辯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豫算案 審査의 관행의 일부가 밝혀지기도 한다. 農漁村公社法이 통과되기도 전에 豫算이 編成된 것에 대한 委員들의 질책에 대하여 長官은 그것을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회로서는 法을 또 내놓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은 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역시 豫算과 병행해서 해야 했고, 또 法案도 豫算附隨法案으로서 제출했고, 또 제가 法的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國會慣例上 法과 豫算을 같이 審議 의뢰하는 관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答辯하고 있다.

그에 표준적인 해명성, 說明性 答辯이 많으나, 經濟企劃院과의 관계를 밝히기도 하고 增額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한다. 林産廳의 豫算과 관련하여 「당초 豫算額이 얼마나 감해진거요」와 「水産廳에서는 豫算編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水産廳長은 「企劃院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역시 전년도 豫算이 어쨌든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온 것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점입니다」라고 호소한다.

아마도 答辯中 가장 크게 강조하려는 것은 豫算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기대일 것이다. 企劃管理室長은 豫算概要를 보고하는 중간에 委員들이 어떤 특정 項目의 豫算減額에 관해서 질문을 하자 다음과 같이 희망하고 있다.

「우리 政府案이 國會에 나올 때는 農林水産部豫算이 10%내저 12%정도 增額됩니다. 금년 도도 나올 때 12% 나왔는데 國會에 와서 20% 넘게 增額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國會에 오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委員님들께서 격려와 도움을 주시기 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行政部處—經濟企劃院—常任委員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間의 決定類型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行政部處는 豫算當局이 어느 정도나 삭감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덧붙여서 豫算을 요구하고, 豫算當局은 常委에

서 몇개의 項目을 추가하거나 덧붙일 것을 豫想하고 減額調整하며 常委는 豫決 委에서 조정될 것을 豫想하고 덧붙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3. 1990年度 定期國會(第151回 國會)의 1991年度 豫算案審查³²⁾

(1) 概要

1991년도 農林水産部の 豫算案에 대한 農林水産委員會의 豫備審査는 1990년 11월 20일과 21일, 그리고 12월 7일과 8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概要說明중에 이루어진 發言총수중 與野가 각각 반씩을 차지하고 있으나 180 회중 3인이 126회를 차지할 만큼 일부 委員이 發言을 독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政策質疑發言 총 92회중에서도 2인이 35회를 차지하고 있다.

豫算案 提案說明과 豫算案 概要說明中에 委員들이 빈번하게 질문하는 것은 여전하고 이의제기, 代案提示와 비판등 다양한 發言이 있었다. 다른 委員會와 마찬가지로 農林水産委員會도 기본적으로는 農林水産部の 이해를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小委員長의 다음과 같은 보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통해 제기하셨던 豫算關聯事項을 中心으로 深度있는 審 査와 政府側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한 결과…農漁村의 國際競爭力 提高와 農漁家所得增 大를 위해 農水産業의 構造調整 등이 시급하고 이에 소요되는 豫算이 대폭 增額되어야 한다는데 視角을 같이 하고…豫算案은 增額修正 議決하고 附帶意見を 달았습니다」

(2) 政策形成

氛圍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發言은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것 이외에는 특 징있는 것이 없으나 仲裁의 努力은 눈에 띈다. 우선 李熙天委員(平民)은 農漁 民子女 學資金支援問題에 관해서 「…이것이 農林水産部 所管이 아니고 문교부 所管입니다. 이것은 문교부에 넘기세요.…」라고 所管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豫算要求의 타당성이나 근거등에 관해서는 「阜上空論」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金泳鎮委員(平民)은 「農業振興稅를 目的稅로 新設, 投資擴大하겠다고 長 官이 公式發言하고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이 長官이 바뀐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춰 버리면 政府業務의 連續性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하고 추궁한다.

그 외에는 더 많은 豫算을 확보하라는 주장인데 추곡수매, 農水産特加工, 耕 地 整理事業, 定住圈開發事業 등등 豫算이 增額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主唱者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32) 第151回 國會 農林水産委員會 제 4 차(1990. 11. 20), 제 5 차(1990. 11. 21), 제 8 차 (1990. 12. 7), 제 9 차(1990. 12. 8) 회의록

(3) 行政監督

行政監督을 위한 差別과 統制를 위해서는 개별사례를 예시하면서 불공평, 비리, 부정, 불법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朴煥秀委員(民自)은 「…호남작물시험 영남작물시험 고려지시험 제주시험…어째서 호부지대 시험은…농사꾼이 중부地域에는 없는 모양이지요?」라든가 「江原道 越郡 水周面 雲鶴里를 제가 답사를 해 보았어요. …請願이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政府에서 암거하나 놓고 그러면」道路가 개통될텐데 도와주겠느냐 하고 江原道の 地域利益을 대변하고 있다.

長官이나 廳長의 答辯態度나 말꼬리를 잡아서 꾸짖고, 빈정대고, 얼르고 달라고 하는 협박하기 까지 한다.

李熙天委員(平民)이 「…왜 法的으로 보장되어 있는 豫算도 못 가져 오느냐 이것입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曹京植長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자 李熙天委員은 「…長官이 그렇게 東問西答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넘어갈일 나옵니다. 만약 長官이 끝까지 이렇게 東問西答으로 해서 적당히 넘긴다면 끝까지 따지겠어요. 法에 명문규정이 있는데 도외시하고 앓는다는 것은 國會를 무시하는 것이고 어디 감히 長官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라고 비난한다. 말꼬리를 잡아서 집요하게 따지기도 하며 金泳鎮委員(平民)은 不在山主問題와 관련하여 「새로 오신 廳長님은 더 잘 알고 오래 계신 次長님은 잘 기억을 못하고 그러네요」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長官이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다마는…」 하고 答辯을 하자 朴煥秀委員은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얼마더 질고 넘어감시다. …혼란이 오면 農民만 골탕먹는 것이지 그때는 長官이 그만 두든 안 그만두든 골탕먹는 것은 農民 뿐입니다. …農林水産委員會에서 農村出身 國會委員들이 이리 이리하게…국민의 대표로 뽑아준 國會議員들이 얘기하면 수정도 하고 교정도 하는 것이지 황소 외교집으로 250만씩 차액보상불변이다. 과연 그런 長官이 얼마나 매기가 두고 봅시다」

(4) 答 辯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어물어물 넘어가려하면 東問西答이라고 해서 공격을 받고 소신껏 答辯하거나 論爭에 말려들면 위에서 본 것 처럼 협박을 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의례적이지만 일종의 「표준화된」 答辯으로 感謝의 뜻을 포함한다. 小委員會에서 增額한 부분과 나머지 정부원안대로 豫算案이 의결된 후 李東雨

次官이 다음과 같이 인사하였다.

「존경하는 …委員 여러분! …農漁村을 아끼는 깊은 애정으로 심도있게 審議하여 주신 委員 여러분께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의결하여 주신… 豫算案에 대해서는 앞으로 豫決委員會와 本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하여 주시는 대로 효율적인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실천해 나갈으로써 …委員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4. 1991年度 定期國會(第156回 國會)의 1992年度 豫算案審查³³⁾

(1) 概 要

1992년도 農林水産部 豫算案에 대한 農林水産委員會의 豫備審查는 1991년 10월 21일, 10월 22일 및 10월 25일의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2) 行政形成

가. 雰圍氣 傳達

총괄포에 나타난 바와 같이(附錄 참조) 農林水産委員會도 行政部處의 豫算案 提案 說明 도중에 質問을 많이 하고 있다. 委員들이 農林水産分野와 관련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모두가 모든 項目에 대하여 代案提示의인 의견을 곁하여 質問하고 있다. 보고도중의 質疑, 政策質疑 項目이나 發言 그리고 書面質疑 項目을 합해 보았을때 總質疑數는 391건인데 그중 세 委員의 質疑數가 무려 2.1건에 달하며 李熙天委員(民主)과 金泳鎮委員(民主) 2인만의 質疑數가 196회나 된다.

다른 委員들의 경우에도 전문성이 엿보이는데 이 두 委員들은 특히 많은 사전 준비를 한듯하며 사실상 政策形成과 行政監督이라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發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豫算審議에 있어서 委員들이 行政部處의 提案을 검토하는 한가지 방법은 특정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李熙天 委員은 定住圈開發事業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고 金泳鎮委員은 중자기금지원대상에 밀(소맥)이 포함되어있는가의 여부,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와 水産物流通問題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質問과 代案 속에서 農林水産部 간부들이 政治的 雰圍氣를 각지할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나. 仲 裁

豫算의 根據는 法令이라 할 수 있는데, 野黨에서는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

33) 第156回 國會 農林水産委員會 제 5 차(1991. 10. 21), 제 6 차(1991. 10. 22), 제 7 차(1991. 10. 25) 회의록

의 根康法이 통과되기전에 豫算額을 計上한 것을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어떤 事業의 豫算額을 삭감하고 어떤 것을 增額할 것인지 구체적인 項目을 열거하고 있으나 막상 豫算內容 자체에 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計數調整을 위한 小委員會를 실질적인 결정기구로 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金泳鎮 委員이 밑을 종자기금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계속 요구하여 長官을 궁지에 빠뜨리자 鄭昌和委員長은 「豫算小委員會 할 때 넣으니까 되는 것, 뭘 거기다 물어? 豫算編成을 그렇게 조정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3) 行政監督

가. 差別

特別利益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확한 統計를 根據로 하여 擔當局長의 是認을 얻어내고 農水産民을 擁護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상과는 달리 畜産水産團體의 利益을 擁護하는 發言이 적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거대한 農畜水産團體를 일종의 御用團體라고 보려는 경향 때문인 것 같다.

또 農畜水産關係의 大企業보다는 零細한 農畜水産民을 擁護하는 경향이 있고 敎育이나 商工委보다는 地域利益을 擁護하는 發言이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는데 農林水産關係의 行政이 敎育이나 商工委보다 地域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政治的 統制

營農機械化事業등과 관련하여 行政을 불신하는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으며 기타 이리, 의혹, 불법의 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統制를 시도한다. 예컨대 전술한 바와 같이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가 입법도 되기전에 豫算을 계상한 불법성을 지적하여 長官이 사인하도록 만들고 朴亨午委員(民主)은 2종 漁港에 대한 豫算支援擴大를 요청하면서 「1종 3종 漁港을 시설하는 시공업주는 大企業... 水産廳이 아니라 직접 經濟企劃院과 상대해서 豫算을 따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로서 부당성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統制와 아울러 豫算을 조정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다. 答辯

政策形成이나 行政監督에 있어서 다른 부처와 유사한 答辯方式을 사용하고 있다. 즉, 제도를 보완하겠다 라든가 7차 5개년계획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答辯으로 委員의 지적을 수용하며 「國立公園이 山林廳으로 관리가 전환되

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 林業系統에 있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라는 答辯으로 기회를 포착한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다.

D. 建設委員會—建設部

1. 1988年度 定期國會(第144回 國會)의 1989年度 豫算案審查³⁴⁾

(1) 概要

1989년도 建設部 豫算案에 대한 建設委員會의 審査는 1988년 11월 8, 9, 11일에 이루어졌다. 豫算案 概要說明中에는 委員들의 質疑가 없었다는 것이 특색이고 政策質疑發言 총 159회중 野黨 3인의 發言回數가 113회나 된다. 그리고 또한 議事進行發言에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常任委員들이 개별事業의 主唱者的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建設部 豫算案 總額을 削減시키고 있다.

議事進行發言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제기된 두가지 큰 쟁점은 첫째 방대한 豫算을 큰 <패키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項目別, 工事別審査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 둘째 「道路事業特別會計」가 立法도 되기전에 豫算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등이다.

(2) 政策形成

가. 雰圍氣 傳達

그전 같으면 관례라고 해서 예사롭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문제들이 議事進行에서 爭點으로 제기되어 政治的 雰圍氣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崔二鎬委員(民主)은 明細豫算의 審議가 아닌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豫算을 審議하는 것은 法律通過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國會議員한테 豫算審議를 받으면서 道路事業 몇백억 또 河川事業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자체가 시정되지 않는 한 여기서 豫算審議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宋鉉燮委員(平民)은 「이것은 5共和國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豫算 여기서 몽땅 통과시켜 가지고 어떤 사람 청탁하는 사람 豫算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豫算 안 주고 建設部에서 지금까지 고유권한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비판한다.

辛基夏委員(平民)도 첨가하여 말하기를 「5共和國 이전의 이른바 國會를 通法府化시켰던 行政府의 侍女化시키려고 하는 行政府의 고정관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建設部임을 이 豫算案을 보면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라고 운을 뗀 후

34) 第144回 國會 建設委員會 제 5 차(1988. 11. 8), 제 6 차(1988. 11. 9), 제 7 차(1988. 11. 11) 회의록

에 별적 근거도 없이 「道路事業特別會計」에 歲入・歲出이 計上된 이유를 묻고 있다.

金云桓委員(民主)은 또 다른 시각에서 「盧泰愚씨가 大統領候補로 나와 가지고 〇기저기 약속하고 民正黨議員들이 議員立候補해서 地域마다 公約한 事業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豫算만든 것, 民正黨이 뭘데? 왜 특정 정당만 뒷바라지 하고 있느냐 이거야! 이게 무슨 豫算案이요!」라고 하여 다른 議員과 논쟁하고 있다.

나. 仲裁

事業費 項目間의 調整에서도 政治的 變化를 실감케 하고 있다. 都市零細民住 居環境支援豫算을 당초 豫算案대로 200억원을 與黨인 民正黨이 소수의견으로 計上했는데 建設委員會 史上 최초로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되었고 신규 高速道路建設을 위한 道路公社출자 300억원삭감, 一般 國道建設 國庫債 300억원을 減額하여 多目的 댐 建設을 위한 國庫債로 전환하는 것 등이 民主黨 소수의견으로 提示되기도 하였다.

豫算事業의 調整을 위하여 제기된 문제는 高速道路建設을 道路公社가 하지 말고 建設部가 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 道路事業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경제성을 근거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地域 不均衡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도 거론되고 金云桓委員은 내년도 豫算속에 盧대통령 선거 공약인 住宅建設과 道路事業部門의 豫算이 建設部 전체 豫算의 73.3%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지난번 盧대통령 선거공약 이행만을 목적으로 豫算案이 編成되었음」으로 대폭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豫算項目別로 삭감조정안을 提示하는 委員도 있으며 建設部豫算이 전년대비 52.8%가 增額 計上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예상한 增額이 아니냐고 소위 불리기(padding)을 따지는 委員도 있다.

그리고 다른 常任委員會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초의 豫算要求內容中 經濟企劃院에서 조정된 내역을 밝히려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豫算事業의 調整을 위한 자료로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所管부처의 영역다툼과도 관련된 다. 세컨데 앞에서 본 신설 高速道路의 所管과 관련하여 崔二鎬委員(民主)은

「..그렇다면 建設部는 經濟企劃院의 侍女나 이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經濟企劃院 재정특용자로 해서 道路公社에 가도록 그렇게 豫算編成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본 委員은 建設部가 자기 본 業務를 찾아먹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主唱者的 역할이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9년도 建設部 豫算은 常委에서 減額되고 있다.

나. 答 辯

答辯이라는 것이 원래 委員들의 質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했느냐에 따라서 答辯方式이 달라진다. 「그렇지 않느냐?」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하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인데, 대부분의 答辯은 事業內容을 다시 說明하는 것이 되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地域의 均衡개발, 都農間 격차해소라는 차원에서 포장을 넓혀나가도록」하겠다는 등 방침의 변화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다.

(3) 行政監督

建設事業의 성격상 委員들의 地域擁護的인 發言이 他委員會의 경우보다 많은 것 같다. 예컨대 하남공단지원비, 수도요금의 地域的 不均衡 是正, 多島海開發, 西南海岸開發, 東海岸 落後地域 및 江原道와 京畿北部地域開發 대전-신탄 진각 4차선 道路建設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人事問題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金沄桓委員은 「특정인이 특혜 승격되었다는 사실도 本 委員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建設部 전체 事務室의 가장 큰 불만이며 많은 부조리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長官의 人事所信을 물었는데 長官도 加點制度의 副作用을 是認하고 있다. 또한 蔚山開發制限區域 不法 土石採取 問題로 關係者의 問責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行政監督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行政府側은 是正하겠다는 등의 말로써 答辯하는데 때로는 說明을 하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 예컨대 高速道路建設을 道路公社에서 建設部로 移管하자는 委員들의 주장에 대해서 崔同燮長官은 「事業執行을 下部機關에 위임하는 것이 現代行政의 추세이고」 투자재원조달등 여러면에서도 道路公社가 우월하다고 答辯하고 있다.

2. 1989年度 定期國會(第147回 國會)의 1990年度 豫算案審查³⁵⁾

(1) 概 要

1990년도 建設部 豫算案에 대한 建設委員會의 審査는 1989년 10월 26일, 10월 27일과 30일, 그리고 11월 6일에 있었다.

권례에 따라 權寧珪 建設部長官은 豫算案을 提案說明한 후에 인사말에서

35) 第147回 國會 建設委員會 제 4 차(1989. 10. 26), 제 5 차(1989. 10. 27), 제 6 차(1989. 10. 30), 제 8 차(1989. 11. 6) 회의록

「…10년도 豫算案이 政府原案대로 審議 通過되어 모든 事業計劃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부탁했는데, 企劃管理室長에 의해 豫算案 概要說明 도중에 委員들의 잦은 질문으로 보고가 자주 중단되곤 하였다. 여기서도 野黨委員들의 질문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委員들의 政策質疑 內容 中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다.

委員들은 建設部의 事業內容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는 말단지엽적인 듯한 문제를 놓고 지역구의 利益이나 특정지방의 利益을 擁護 하면서 일방적인 분풀이를 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특히 野黨委員들은 그동안 받아들인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與小野大의 상황하에서 유감없이 해소하려는 느낌을 준다.

이 委員會에서는 豫算案 심의방식이나 節次와 規範에 대한 論議도 있었는데 小委員會의 審査報告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결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도 있었다. 委員長이 의의여부를 묻자 「國會에서 돈을 자꾸 보태주려고 하는 이유」를 묻는 委員도 있었고, 「…常任委員會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小委員會에 끌려가야 한다는 그러한 당위성은 없습니다…」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委員이 있자 徐廷華委員(民正)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國會慣例를 보면 豫算案을 常任委員會에서 심의하기 전에 각 당대표로 小委員會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한 두 사람이 얘기한 것은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자기 주장과 자기 소신을 달아서 넘어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原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政策形成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政治的 雰囲気의 變化를 느끼게 하는 發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특정지역을 差別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李元濟委員(2次民)은 全北地域에 대한 어떤 事業費가 적은 것은 政治的 보복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 인상이 짙다고 하면서 「내가 平民黨 國會議員이지만 다 뽑았다 리서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뜻으로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 長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더니 建設部의 豫算案이 허술하게 짜여진 것은 「國會議員을 희롱하기 위한 것」 같고 「建設部가 아니라 破壞部예요. 破壞部! 이런 장난치지 말아요! 豫算決算委員長 內定者가 목 달아났으니까 끝까지 보복을 하겠다는 거요? 왜 이런 장난을 치고 있어!」라고 분개한다.

나연한 말이지만 委員들은 豫算編成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데 政策質疑에서는 여러 개의 項目에 걸쳐서 조목 조목 따지다 보니 委員들의 질문이나 지적사항중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또 질문하는 스타일은 「충분한가?」 「과다 또는 과소책정사유」 「대책」 등이다.

(3) 行政監督

이해 해와 마찬가지로 建設委員會는 연고가 있는 지역의 利益을 擁護하거나 지역간 균형 또는 형평성 유지를 요구하는 發言들이 두드러진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委員들이 지역구 보다는 전국적 관점에서 豫算案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規範」을 내세운다.

全東周委員(民主)은 「…나는 가급적이면 地域區 問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建設部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吳龍雲委員(民主)도 「…여기서 常任委員들이 質疑하는 문제는 물론 全國의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 내용에 포함시켜서 質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하여 지역구 문제를 감정적으로 거론하는 委員도 견제하면서 정부측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질문을 유발하지 않도록 長官이 答辯할 때 확실한 근거를 提示해 줄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地域利益을 대변하는 發言의 예는 많다. 金柱鎬委員(平民)은 「…전국에서 제일 오염된 물을 먹고 있고 상수도대금을 최고로 내고 있는 木浦에 대한 대책은 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라고 물었고 李麟求委員(共和)은 「…어느 道는 都市下水道 事業하는 市가 5개 4개 2개 이상 있는데 왜 금강유역 忠淸南道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푸대접만 받고 똥물만 먹고 사는 곳입니까? 균형적으로 배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하더니 정책質疑에서는 建設費 상한선 결정과 관련하여 「…그런데 이상하게도 총납만이 20%가 안되는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忠淸道가 누적된 無待接을 받고 있다는 상징적인 통계일시다.…」라고 비판한다.

委員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중에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도 있다. 李淮龜委員(民主)은 「…서울 근교 산에 등산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취사장하고 물이에요…내가 산에 갈 때마다 절실하게 느낀 것이 라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는 것이다.

玄峻植委員(民主)은 建設部 計劃이 자주 바뀌는 것을 비판한다. 즉,

「…建設部는 法的인 節次없이 그때 그때 형편과 여론에 따라 마음대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質疑한 것입니다. 많은 기관 학계와 협조하여 작성한 계획을 현실적 비

더는 책장에나 꽂아 놓고 長官이 교체될 때마다 長官의 명령이 至上의 명령인양 長官 마음대로 建設施策을 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사람 한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선고하는데 여러분들은 수 백명의 생명을 죽이고도 무사히 앉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發言도 하나의 政治的 統制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答 辯

與小野大로서는 두째해가 되는 國會라서 그런지 行政府側의 答辯態度에 대한 주의 사항도 많다. 「적당히 얼버무려서 答辯하시려고」 하지 말라든가 「충분한 答辯資料를 만들어서 남득이 갈 수 있도록 說明」하라든가 하는 주의와 答辯者의 態에 관하여 「...방금...우리 ○委員이 상당히 훌륭한 質疑를 하였는데 그 문제는 실장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長官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答辯時에 質疑에 대한 답변으로 해서 長官이 답변하도록」 하라고도 하였다.

長官의 答辯은 논쟁성이나 회피성이 적었고, 해명, 說明,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들로서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든가 하면서 적극 추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3. 1990年度 定期國會(第151回 國會)의 1991年度 豫算案審査³⁶⁾

(1) 概 要

1991년도 建設部 豫算案에 대한 建設委員會의 豫備審査는 1990년 11월 20일과 21일 그리고 12월 7일과 8일에 이루어졌다. 다른 해 다른 委員會와 유사한 형태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즉, 豫算案 概要說明 途中에 質疑가 이루어진 다거나 상대적으로 野黨委員들의 질문이 많다는 것등이 그것이다. 常任委員들이 建設部의 業務와 관련하여 豫算을 더 얻으려고 하고 所管業務나 기능 또는 재원을 타부처에 넘겨주지 않으려는 擁護的인 태도도 다른 委員會의 경우와 같다.

다만 建設分野의 業務자체가 地域性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委員들은 豫算配分:에 기준이나 근거를 따질 때 地域間 均형성과 緣故地域의 利益을 강하게 擁護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建設業務分野에 대한 동조 또는 지원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建設部 관료:제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政治的 統制를 시도하고 있다. 이상의 특징들은 우리나라에서도 委員會—行政機關—利益集團間에 하나의 政策下位體制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政策形成

與小野大로 출발하여 三黨統合을 거쳐서 民自黨이라는 與黨이 다수 의석을

36) 第151回 國會 建設委員會 제 7차(1990. 11. 20), 제 8차(1990. 11. 21), 제 9차(1990. 12. 7), 제 10차(1990. 12. 8) 회의록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政治的 분위기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특징은 찾아 보기 어렵고 어느 하나 마찬가지로 豫算編成의 근거와 타당성을 따지는 한편 建設分野의 豫算이 增額되어야 한다는 論據들이 대부분이다.

建設業務에 있어서는 分野間 또는 事業間 仲裁이라는 것이 바로 地域問題와 연계되는 속성때문이지만 豫算編成의 타당성, 일관성, 형평성, 우선순위등 어떤 特定地域에서 시행될 事業들이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가를 따지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태도는 豫算을 增額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어떤 事業의 豫算을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은 그만큼을 다른 事業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委員中에는 삭감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李元泮委員(平民)은 「91년도 建設部 豫算이 순증규모 11.1%인 것은 膨脹豫算이므로 불요불급한 1,700억원 정도를 豫算에서 삭감하고 疎外地域에 160억원을 增額해서 偏重豫算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묻고 있다.

建設部の 豫算을 增額하려는 委員들의 관심은 建設部の 豫算要求額이 經濟企劃院 사정과정에서 삭감된 내역을 알아내어 그것을 復活시켜 보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金沅桓委員은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91년도 建設部 豫算案은 經濟企劃院에 당초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37%가 삭감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豫算에서 37%나 삭감되었는데 어느 事業이 조정되었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이 결과로 인해 당초 事業에 엄청난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建設部の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建設部の 所管業務가 타 부처로 이관되는 것도 반대하고 建設部所管事業을 위한 목적세 수입의 일부를 다른 事業으로 돌리는 것도 반대한다. 예컨대 휘발유소비세의 수입중 일부를 道路事業特別會計에서 쓰지 못하고 지하철개발비로 轉出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李麟求委員(民自)은 소비세수입 전액을 사용해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추긴다.

「...10%를 안 빼앗기고 100%를 다 가져도 모자랍니다 하는 얘기를 建設部는 왜 주장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옳다고만 얘기하면 建設委員들은 建設業務를 방해하라는 얘기입니까? 밀어 달라는 얘기입니까? ...建設部長官께서는 국무회의에서 그 문제를 얘기하다가 곤란하다면 建設委員長이나 委員들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좀 뺏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할 용의가 없어요?」

(3) 行政監督

行政監督이라는 시각에서 나타나는 委員들의 관심은 획일적 公平성에 대응하는 차등적 形평성의 요구와 行政裁量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政治的 統制이다.

委員들의 地域利益에 대한 관심은 우선 緣故地와 관련된 事業에 대한 豫算內譯을 알고자하는 것과 地域間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진다. 緣故地 地域利益에 관해서는 「全州圈 2段階事業 현재 투자지원추세로 나가면 93년까지 완공가능한가?」로부터 시작하여 「삼진강 治水事業이 95년까지 완공될 수 있는가?」를 포함하여 한강수해대책, 단양·일산수제민 대책, 광양道路事業등등 다양하다.

地域利益을 주장할 때는 그냥 단순히 利益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地域과 비교하여 타당성이 없거나 형평성이나 균형을 잃었다고 말한다. 가령 金沅村委員은 「낙동강 연안개발이 慶北地域에만 우선 집중되는 이유라도 있는가?」라고 묻고 있으며 辛基夏委員(平民)은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豫算의 均衡配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로서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과 영남권에 전체 투자액의 66.1%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질책된다.

「기획도 湖南疎外計劃을 인정하더라도 事業費投資面에서의 事業進陟度도 湖南부대접이니 이것이 바로 地域均衡開發이고 民間和合 地域間 和合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建設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地域적인 여건이 어떻고 우선순위가 어떻다고 비라고 答辯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불만은 金東周委員(民自)의 質疑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豫算編成이 잘못되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한다고 말하면서 설계가 끝난 密陽댐 공사비용이 18억원을 計上하여 불충분하게 해놓고, 반대로 용담댐의 경우에는 설계비와 보상비를 합쳐서 51억 8,000만원을 計上하였으니 豫算配分이 공평치 않다는 것이다.

政治的 統制는 세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建設部의 직제를 개편하여 일부 業務를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李麟求委員은 與野多數委員이 建設部의 7개 기능이 타 부처로 넘어가고 「1개의 괴상한 業務(부동산 중개업 관리)」가 建設部로 이관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데

「...전부 그렇게 뺏기고도 그게 옳다고 建設部에서는 答辯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建設委에 소속되어 있는 委員의 입장에서 팔이 안으로 구부러진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여러 각도로 질문을 했는데 千篇一律的으로 그것이 옳다고 대답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둘째로 一般國道建設事業費의 豫算明細를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委員과

각 부처간의 공방에는 總括豫算 對 品目別豫算原則間的 갈등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지만 미리 세부 내역을 밝힘으로써 생겨나는 부동산가격변화나 地域間的 균형 유지등의 난점이 있어서 委員들은 그 내역을 미리 알아야 출신구에 가서 업적을 내세울 수 있고, 정부측은 숨겨야만 되기 때문에 「관례」가 어떻다느니 「준비가 안되었다느니」하고 시간을 끄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한 공방은 집요하게 이어져서 宋鉉燮委員(平民)은 다음과 같이 유도한다.

「建設委員會에서 매년 행사처럼 委員들이 이것을 거론했고 전임長官들께서는 그것을 도저히 낼 수 없다고 答辯을 해 왔는데 李長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지금 가지고 계시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道路局長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李長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밝혀주세요」

세째로 위와 같은 사례는 豫算속에 어떤 「속임수」가 있거나 얕은가 하는 委員들의 불신감을 자아낸다. 예컨대 崔二鎬委員(民主)은 海外建設振興基金에 대한 출연문제를 따지다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豫算書를 보면 목적도 없이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內識을 넣어 놓았는데 豫算을 하는 사람이 事業費 내용을 編成할 때 숨기는 식으로 豫算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豫算編成을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쓰는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委員들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3) 答 辯

委員들이 豫算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增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答辯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다같이 主唱者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經濟企劃院의 査定過程에서 삭감된 부분을 復活시켜 보려는 것이 각 부처의 일관적인 태도인데 建設部의 경우 좀 다르게 반응했다. 즉, 豫算當局의 입장을 이타하는 것이다. 왜 經濟企劃院에서 建設部가 요구한 豫算의 37%나 삭감되었으니 그 내역이 무엇이냐는 質疑에 대해서 長官은 내역을 밝힌 다음 아래와 같이 양해를 구한다.

「...요구된 豫算에 대하여 當部로서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정부재정 형편상 우리 부처의 事業에만 집중투자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1년도에 반영된 豫算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建設施策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 膨脹豫算이라는 비판에는 아니라고 答辯하고 黨政協議時에 조정된 내용도 밝히 주는 등 큰 무리가 없다. 또 地域間 均衡을 요구하는 質疑에 대해서도 앞으로 반영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등의 答辯으로 수용하고 넘어가는데

만일 長官이 「합리적」인 근거를 대려고 하다가는 그 자체가 논쟁거리가 되는 수도 있다. 호남권에 대한 투자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建設部長官이

「...는 대도시의 시급한 分野에 우선 투자를 해야된다는 방침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의 1인당 투자규모는 西南圈이 196만원, 首都圈이 194만원, 中部圈이 188만원, 東南圈이 187만원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答辯하자 辛基夏委員이 되받고 있다. 즉,

「일 1당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그런식으로 말하면 西南圈이나 湖南圈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곳으로 집중되기 마련이고, 유인되기 마련입니다... 인구 1인당 투자비율이 얼마다 그러한 答辯은 적절하지 못한 答辯으로 생각됩니다」

建設部長官은 또 휘발류 소비세 수입의 일부가 전출되는 것도 용인하고 建設部 財制 改編도 合理的이라고 辯護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長官이 「정통」 建設部 관료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一般 國道建設事業費의 내역을 밝히려는 委員들의 끈질긴 요구에 대하여 長官은 「經濟企劃院에 5천억원을 요구했는데 3,300억원으로 사정되었다. 豫算이 삭감되어 축소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個個單位事業에 대한 物量이나 金額內譯이 없다」라는 요지의 말을 하였고 「經濟企劃院에서 豫算編成上 一般國道事業은 포괄적으로 豫算全額을 한 묶음으로 해서 計上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豫算書에 이 事業內容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豫算을 地域間에 편중해서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4. 1991年度 定期國會(第156回 國會)의 1992年度 豫算案審查³⁷⁾

(1) 概 要

1992년도 建設部 豫算案에 대한 建設委員會의 豫備審査도 1991년 10월 21일, 10월 22일 및 10월 25일의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2) 政策形成

가. 秀圈氣傳達

建設委員會는 전형적인 정치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委員會의 政策質疑는 建設業務가 地域敏感性이 높은 分野여서 그런지 몰라도 13대 國會

37) 第156回 國會 建設委員會 제 3 차(1991. 10. 21), 제 4 차(1991. 10. 22), 제 5 차(1991. 11. 25) 회의록

가 끝나가고 곧 14대 총선거가 임박했다고 하는 政治的 雰圍氣의 변화를 감지케 하는 내용이 많다. 즉, 建設事業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해 보았느냐 하는 質疑가 많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大統領 公約事業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반복된다.

金榮度委員(民主)은 「지난 大統領選舉에서 각종 公約을 양산한 장본인이 建設部」라는 등 「제 3차 國土綜合開發計劃의 시안이 이렇게 구체성을 띠는 이유는 총선거에서 대선까지 내년도에 있을 제6번의 선거를 치르기 위해 地域選舉公約을 양산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있다.

나. 仲 裁

여기서는 常任委員가 所管 行政部處의 편에 서서 事業의 重要性을 강조하는 主張者의 역할의 전형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金沅桓委員(民自)은

「建設部 내년도 豫算案이 EPB에 요구한 總豫算이 10조 2,937억, 그런데 EPB에서 4조 6,766억원을 삭감, 무려 47%나 게다가 아주 일반적(사소한) 行政管理費는 7억원이나 增額, 지금 先進國에서는 經濟企劃院이란 것이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企劃院의 장난이나 횡포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일개부처의 豫算을 50%나 삭감하는가 하면 이런 식은 부처가 있다면 이런 부처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하여 中央豫算機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崔二鎬委員(民自)은 建設事業의 重點分野라고 내세운 것과 실제 豫算比重間에는 乖離가 있다고 하면서 또 經濟企劃院을 공격하고 있다.

위와 같은 發言을 與黨委員이 하고 있다는 데에 常任委員會의 역할의 이중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豫算案審查小委員의 報告를 토론하면서 李海繼小委員長(民自)은 「...豫算純增은 할 수 없고 삭감하자는 입장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다음 단계인 豫算委員會나 기타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적 의사표시로...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라고 하여 委員들의 增額요구를 建設委 자체에서는 仲裁하지 않고 豫決委에 넘기고 있다. 이에 대하여 南載熙委員(民自)은 「...豫決委에서 이것을 받아 보면 웃기는 문서지요. 增額이 필요하면 增額을 하지, 合意하게 놓고 增額은 하지말라 이렇게 됐다면 豫決委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이다.

다. 答 辯

다른 부처의 長官들과 마찬가지로 「辭任要求는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등으로 시인, 변명, 회피 등의 答辯方式들이 구사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長官이 과거 經濟企劃院에서 豫算實務를 다루었던 경험때문인지는 모르나 委員들의 經濟企劃院에 대한 공격과 비난에 대하여 經濟企劃院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왜 經濟企劃院에서 建設部의 豫算要求額을 대폭 削減했느냐고 하는 다소 原色的인 비난이 섞인 質問에 대해서 李錫高長官은 「이는 當部에서는 事業主管部署의 입장에서 다소 의욕적인 豫算要求를 한데 비해서 經濟企劃院에서 한정된 財源을 보다 많은 事業에 적절히 配分하는 過程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減額」 되었다고 변호하고 있다.

(2) 行政監督

가. 差別

어느 나라 國會든지 公共事業(public works)分野는 地域區出身 國會議員의 利害關係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연유때문인지 建設委員들은 대통령의 公約事業이 公平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출신구와 관련된 事業內容을 알기를 원하고 또 地域利益을 擁護하고 나선다. 이와 같은 태도는 앞에서 살펴본 他 委員會에서는 特殊利益을 擁護하는 듯한 인상을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것과 비교를 이룬다.

예컨대 金沄桓委員은 百濟文化圈만 개발하지 말고 가야문화권도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기타 委員들도 자기 地域과 관련된 京畿道 地域의 그린벨트문제, 江原道에 대한 지원, 하동—광양간 高速道路 建設件 등을 거론하고 있다.

나. 政治的 統制

行政部處에게 어느 정도의 裁量을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政治的 統制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一般道路事業費의 內譯」問題는 地域的 差別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지만 政治的 統制의 측면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즉, 一般道路事業費의 내역제출여부는 가장 언급이 많은 質疑項目中的 하나인데 建設部 企劃管理室長이 小委員會會에서 보여 주겠다고 하고 金鎔采委員長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各委員들의 地域에 관한 문제이고 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全部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宋委員께서 알고자 하는 부분을 이따 質疑하신 다음에 별도로 보이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식으로 行政府에서 준비해주시고 宋委員님은 양해해 주시고 다른 委員도 보실 委員이 계시면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해서 내 놓기가 어려운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委員長이 이와 같이 말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長官이 집행단계에서의 재량을

요청하자 宋鉉燮委員(民主)은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14대 선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建設部가 집행하지만 委員이 미리 알면 거기서 생색내는 事業이 되거든요. 票와 크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우리가 마지막 國會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委員 개개인간에 다 이해관계가 상충된 문제니까 우선 우리 委員會에서 豫算을 통과시킬 때는 細目別 내용이 없이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答 辯

委員들의 質問中에는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가하기도 하는데 담당국장들은 그것을 참아내야 되는 것 같다. 그런데 政治的 統制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내세워서 裁量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예컨대 建設部長官은 「도로포장사업의 豫算은 전체총액을 國會에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行政府가 도로포장사업중 先後緩急을 나름대로 또 國會 委員님들이 質疑하신 것도 참작해서 책정·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은 전체총액만 豫算요구되어 있지 안의 내용은 비어 있다」고 말하였다.

V. 要約 및 結論

A. 概 要

第13代 國會의 4년간의 매년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진 常任委員會의 소관부처의 예산안 예비심사기간은 대체로 3일정도여서 너무나 짧았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豫算案의 提案說明, 豫算概要說明, 質疑·應答 및 計數調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豫算項目別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나마 行政府側에서 豫算案 概要를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常任委員들이 끼어들어 質問을 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매우 산만한 느낌을 준다. 概要說明中에 질문을 자제한 경우는 1989년도 상공부의 예산안을 심의한 商工委員會 하나 뿐이다.

예산개요를 설명하는 도중과 政策質疑時에 이루어진 질문중에는 중복되는 것도 많고 매년 반복되는 것도 많은데, 일부 委員中에는 사전에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질문하는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發言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自省의 소리로서, 좀 더 밀도있게 예산을 심의하자고 하는 節次에 관한 제안도 눈에 띄나 대체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野黨所屬委員

들의 발언이 많은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與黨所屬委員들이 자주 질문을 하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1939년도 建設委員會만을 예외로 하고 모든 委員會에서 所管部處의 豫算額을 計數調整 小委員會에서 증액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常任委員中에는 행정부가 국회를 경시한다고 호통치고 협박하고 때로는 비꼬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에서도 國會常任委員會—行政部處—利益集團을 구성 요소로 하는 일종의 政策下位體制가 형성되는 듯 하며, 이와 같은 체제속의 정치적 역할과 행정적 역할간의 상호작용속에서 豫算案 豫備審査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 政策形成

1. 雰圍氣 傳達

第 3代 國會의 전반 2년간은 소위 「與小野大」의 國會였고 후반 2년간은 3당 통합에 의하여 巨大與黨이 형성된 國會였는데 두 경우에 모두 政治的 雰圍氣의 큰 변화를 느끼게 할만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예상밖의 일이다. 그러나 政治的 雰圍氣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文教部의 豫算審議過程에서 學園查察이나 教員動態把握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일이나 建設部의 豫算審議에서 地域間 均衡을 요구하면서 주장한 내용 중에는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를 전달하는 것들이 있다. 또한 行政府가 豫算案을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그것이 總括的 提案이 좋으나 또는 明細豫算의 提案이 좋으나 하는 爭點이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답습해 온 관례의 변경을 요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雰圍氣의 傳達는 대체로 批判, 解明要求, 代案提示등으로 나타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農林水産委員會에서 있었던 일과 같이 「전국에 널려 있는 쥐를 유전 공학적으로 개량」하여 食用으로 하라는 식의 荒唐無稽한 代案도 나온다.

때로는 분풀이도 있고, 특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함으로써 非體系의이고 無秩序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듯이 보이지만, 이와 같은 政治的 雰圍氣의 變化를 전달하는 것은 政策刷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2. 仲 裁

豫算案 審査의 핵심은 事業의 범위와 수준 및 비용을 조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事業의 調整(仲裁)에 있어서는 사업의 일관성여부, 예산요구의 근거, 前年度對比 增・減內譯,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찬

반대를 따지게 된다. 예를 들면 1990년도 農林水産部등의 豫算案 審査에 있어서 農林水産委員會에서 문제점을 거론할 때 사용한 착안점을 정리해 보면, ① 전년도 예산기준 감액항목 ② 예산책정의 계속성 및 충분성 ③ 당초 계획대비 증이 된 예산항목 ④ 사업계획대비 예산책정 미달항목 ⑤ 豫算編成의 근거 또는 타당성이 불명확한 항목 ⑥ 예산책정의 지역간 분야간 형평성 ⑦ 國庫補助事業의 경우 國庫補助, 지방비 및 수혜자 자비부담의 비율 문제 ⑧ 장기적 정책과 관련된 예산책정의 기본 방향 등이다. 만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와 같은 사항들이 검토가 된다면 豫算審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은 심의의 시간을 너무 짧게 잡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와 같은 과정에서 追加更正豫算이 편성되지 않도록 견제하려는 노력도 엿보이며, 國政監査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왜 豫算에 반영되지 않았는가를 따지기도 하는데, 「修正豫算」이 편성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따지는 듯 하다.

審任委員會에서 간혹 豫算額을 增額해 주려는 정향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所管 部處의 事業에 대하여 支援的, 同情的이고 主唱者의 역할을 自任하는 경우가 많아서, 豫算額 增額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소관 부처의 예산요구액이 經濟企劃院에서 조정된 내역을 알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조정되었다는 사실자체를 못 마땅해 하고 때로는 中央豫算機關인 經濟企劃院에 대한 심한 공격으로 비약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部處間 業務紛爭을 조정해 보려고도 한다.

○와 같은 調整을 위한 質疑·答辯過程은 委員會와 行政部處에게 다 같이 現代政府의 기능과 사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相互學習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

C. 行政監督

1. 差別

地域區 出身 議員이 자기의 緣故地域과 職能을 대표하여 옹호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官僚制의 劃一的 公平性(fairness)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差別性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差等的 衡平性을 기할 수 있는 중요한 政治的 役割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國會는 僞善의인지 또는 실제의 내면화된 規範이 그러한지는 알 길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豫想 밖으로 緣故地域이나 職能을 옹호하는 말

발언을 금기시하여 삼가려 하고 있다. 다만 農林水産委員會에서 農業, 林業, 畜産業 또는 水産業 등의 분야에 관한 배려를 주장한다든가, 建設委員會에서 地域性 주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업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나 같은 주장도 대개는 衡平性을 요구함으로써 나타난다.

다후 人事問題가 거론되기도 하는데, 個人的인 경험이 많이 활용되며 의혹이나 非理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衡平性을 강조한다.

2. 政治的 統制

非理나 不法, 越權이나 不當한 行政이 統制의 對象이 되는데, 예컨대 「農漁村公社法」이 國會에서 議決도 되기전에 왜 豫算額이 計上되었느냐 하는 것등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 政府側에서 「豫算關聯附隨法案」을 豫算審議 기간에 동시에 國會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면서 변명을 할수록 委員들은 더욱 맹렬한 공격을 가한다.

政治的 統制를 위한 발언들은, 長官이 바뀔 마다 政策이 바뀌는 등의 일관성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不信感을 나타내고 때로는 모욕적이며 공격적 발언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려고 한다.

○ 와 같이 의견상 末端枝葉인 사항들을 거론하는것은 일종의 選別的 統制 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D. 政府側 答辯

行政部處의 입장에서는 問題가 있고 없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問題가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文化와 言語慣習上의 特性和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상책은 「공손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추궁성 질문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왜 豫算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느냐고 물으면, 豫決委에서 「復活」 되도록 常任委員에게 협조를 부탁한다.

同情的 質問에 대하여는 支援을 요청하면서 감사하고, 豫想質問이 나오면 소상하게 답변한다. 그러나 어물 어물 대답하면 「東問西答」이라고 해서 더 추궁을 받고, 소신껏 答辯을 하다가는 말꼬리를 잡혀서 論爭에 휘말리기도 한다. 가령 全教組問題와 같은 政治的 爭點에 관하여 자세하게 해명할수록 論爭을 유발하여, 貿易協會 輸出特計資金の 會費徵收가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더 확하게 해명하려 하다가는 말꼬리를 잡히는 수가 있다.

非理나 不正을 지적받았을 때에 함부로 수궁하면 화근이 될 수 있으나 入試 不中과 같이 公開的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재빨리 사과해야 한다.

經濟企劃院과 部處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대체로 部處의 입장에서 호소하는 것이 상례이나, 經濟企劃院出身 長官의 경우에는 經濟企劃院의 입장을 변호하기도 한다.

一般道路事業費의 內譯과 같이 常任委員들이 집요하게 그것을 밝히라고 요구해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裁量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자기부처의 소관 업무영역의 확장이나 강화를 지지하는 듯한 질문은 재빨리 수동해 버린다.

각 반적으로 볼때, 行政部處—經濟企劃院—常任委員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豫算決定에 있어서 하나의 關係類型이 나타나는 것 같다. 즉, 行政部處로서는 意欲的인 事業計劃을 세워서 經濟企劃院에 豫算要求를 한다. 中央豫算機關으로서의 經濟企劃院은 限定된 財源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各部處의 要求額을 削減하게 된다. 이와 같이 削減된 豫算의 一部가 常任委員會에서 「復活」되기도 하는데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綜合審査過程에서 總額基準으로는 政府原案에 가깝게 修正되고, 그와 같은 테두리 속에서,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내용을 「반영」하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4개 常任委員會의 4개년의 會議錄分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박사과정의 李相昊, 郭彩基, 李在苑, 鄭明珠, 朴英美, 諸碩士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여러분의 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附 錄

〈丑 11〉 農林水產委員會 出席者

(단위 : 명)

國會 委員會次數 (日次)	제 144회 (1988)				제 147회 (1989)				제 151회 (1990)				제 156회 (1991)			
	6차 (11.7)	7차 (11.8)	8차 (11.9)	9차 (11.11)	5차 (10.26)	6차 (10.27)	8차 (11.6)	9차 (11.7)	10차 (11.10)	4차 (11.20)	5차 (11.21)	8차 (12.7)	9차 (12.8)	5차 (10.21)	6차 (10.22)	7차 (10.25)
1. 出席委員	17	18	22	20	18	17	21	22	20	16	19	18	13	16	18	15
2. 委員 아닌 出席委員	2	0	0	0	0	0	0	0	0	6	1	0	0	0	1	0
3. 出席專門委員 及審議官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4. 出席國務院 席委員	1	1	1	1	1	0	1	1	0	1	1	1	0	1	1	1
5. 出席政府 席委員	23	22	23	22	13	19	26	26	25	12	29	26	25	32	34	15
6. 政府側 席者	5	5	5	5	1	0	1	1	1	0	0	0	0	0	0	0
7. 其他參席者	10	7	10	10	10	10	9	10	10	8	9	8	2	8	7	5
8. 出席議員數	19	18	22	20	18	17	21	22	20	22	20	18	13	16	19	15
9. 行政府側 出席者	29	28	29	28	15	19	28	28	26	13	30	27	25	33	35	16
10. 總計	60	55	63	60	46	49	61	63	59	49	62	56	43	60	64	39

〈丑 12〉 第144回 國會 農林水產委員會 質疑 發言(제 6, 7, 8, 9차)

交渉團體別	委員名	報告途中發言		政策質疑中		書面資料要求		
		回數	%	回數	%	回數**	%	
與 黨	民主正義黨	金鍾基*	9	10.8	36	15.7	—	—
	"	權海玉	0	0	6	2.6	—	—
	"	金晉榮	0	0	0	0	—	—
	"	羅昌柱	0	0	0	0	—	—
	"	朴志遠	1	1.2	1	0.4	1 (1)	50(25)
	"	辛再基	0	0	0	0	—	—
	"	吳漢九	7	8.4	12	5.2	—	—
	"	李榮文	0	0	0	0	—	—
	"	鄭東鎬	0	0	1	0.4	—	—
	鄭昌和	0	0	0	0	—	—	
	小計		17	20.4	56	24.3	1 (1)	50(25)
野 黨	平和民主黨	金泳鎮	0	0	0	0	1 (3)	50(75)
	"	朴亨午	12	14.5	19	8.3	—	—
	"	徐敬元	8	9.6	1	0.4	—	—

"	統一民主黨	李相玉	10	12	20	8.7	—	—
		李炯培	0	0	0	0	—	—
		李熙天	6	7.2	29	12.7	—	—
		姜普性	0	0	12	5.2	—	—
		朴旻秀	0	0	20	8.7	—	—
		朴載圭	13	15.7	26	11.4	—	—
		朴泰權	7	8.4	9	3.9	—	—
"	新民主共和黨	許在弘	0	0	1	0.4	—	—
		尹在基	0	0	0	0	—	—
		李鐘根	10	12	23	10	—	—
"	기타	鄭一永	0	0	0	0	—	—
		李一起	0	0	13	5.7	—	—
小計			66	79.4	173	75.4	1 (3)	50(75)
總計			83	100	229	100	2 (4)	100

注: 1) *는 委員長 2) ** 註관호내의 수자는 質疑項目數임.

〈丑 13〉 第147回 國會 農林水產委員會 質疑 發言(제5, 6, 8, 9, 10차)

交涉團體別	委員名	報告途中發言		政策質疑中		書面資料要求		
		回數	%	回數	%	回數**	%	
身	民主正義黨	金鍾基*	17	11.6	32	48.5	—	—
	"	權海玉	5	3.4	5	7.6	1 (6)	7.1 (4)
	"	金晉榮	0	0	0	0	—	—
	"	朴志遠	0	0	0	0	—	—
	"	辛再基	24	16.4	1	1.5	1 (3)	7.1 (2)
	"	沈起燮	0	0	0	0	—	—
	"	吳漢九	3	2.1	0	0	—	—
	"	李起彬	0	0	1	1.5	1 (6)	7.1 (4)
黨	"	李榮文	0	0	0	0	—	—
	"	鄭東鎬	0	0	0	0	—	—
	"	鄭昌和	0	0	0	0	—	—
小計			49	33.5	39	59.1	3(15)	21.3(10)
身	平和民主黨	金泳鎮	2	1.4	1	1.5	1 (6)	7.1 (4)
	"	朴亨午	21	14.4	4	6.1	1(17)	7.1(11.3)
	"	徐敬元	0	0	0	0	—	—
	"	李相玉	7	4.8	1	1.5	1 (3)	7.1 (2)
	"	李炯培	1	0.7	2	3	1(16)	7.1(10.7)
	"	李熙天	25	17.1	3	4.5	2(58)	14.3(38.7)
	統一民主黨	姜普性	11	7.5	1	1.5	1 (2)	7.1 (1.3)
	"	朴旻秀	14	9.6	3	4.5	1 (7)	7.1 (4.7)
身	"	朴載圭	0	0	0	0	—	—
	"	朴泰權	15	10.3	8	12.1	1(12)	7.1 (8)

"	新民主共和黨	許在弘	0	0	0	0	—	—
		尹在基	0	0	1	1.5	—	—
		李鐘根	0	0	2	3	1 (4)	7.1 (2.7)
		鄭一永	1	0.7	1	1.5	1 (10)	7.1 (6.7)
"	小計	97	66.5	27	40.7	11(135)	78.2(90.1)	
總計	總計	146	100	66	100	14(150)	100	

註: 1) *는 委員長. 2) ** 괄호안의 수자는 質疑項目數임.

〈丑 14〉 第151回 國會 農林水產委員會 質疑 發言(제4, 5, 8, 9차)

交詢團體別	委員名	報告途中發言		政策質疑中		書面資料要求		
		回數	%	回數	%	回數**	%	
與 黨	民主自由黨	鄭昌和	21	10.4	34	25.4	—	—
	"	金晉榮	0	0	7	5.2	—	—
	"	金顯煜	0	0	0	0	—	—
	"	朴旻秀	45	22.4	2	1.5	—	—
	"	朴志遠	0	0	0	0	—	—
	"	朴泰權	3	1.5	0	0	—	—
	"	辛再基	5	2.5	8	6	—	—
	"	沈起燮	3	1.5	1	0.7	—	—
	"	李起彬	8	4	6	4.5	—	—
	"	李承潤	0	0	0	0	—	—
	"	李榮文	0	0	0	0	—	—
	"	李鐘根	0	0	0	0	—	—
	"	鄭東星	0	0	0	0	—	—
	"	鄭東鎬	0	0	6	4.5	—	—
"	鄭順德	0	0	0	0	—	—	
"	鄭一永	17	8.5	9	6.7	1(15)	33.3(42.9)	
"	許在弘	0	0	6	4.5	1 (8)	33.3(22.9)	
	小計	102	50.8	79	59	2(23)	66.6(65.8)	
野 黨	平和民主黨	金泳鎮	25	12.4	9	6.7	—	—
	"	朴亨午	4	2	9	6.7	—	—
	"	愼順範	9	4.4	0	0	—	—
	"	李炯培	5	2.5	14	10.4	1(12)	33.3(34.3)
	"	李熙天	56	27.9	23	17.2	—	—
	"	盧武鉉	0	0	0	0	—	—
	小計	99	49.2	55	41	1(12)	33.3(34.3)	
總計	總計	201	100	134	100	3(35)	100	

註: 1) *는 委員長. 2) ** 괄호내의 수자는 質疑項目數임.

5. 出席政府委員	10	12	8	10	10	13	2	11	13	13	9	13	13	12
6. 政府側參席者	0	0	0	1	0	0	0	0	0	0	0	0	0	0
7. 其他參席者	4	4	4	0	4	4	0	4	4	1	0	6	7	6
8. 出席議員數	18	19	19	18	16	19	17	20	20	19	20	18	19	19
9. 各政府側出席者	11	13	9	12	11	14	3	12	14	14	10	14	14	13
10. 總計	33	32	28	33	34	40	23	40	41	37	33	41	43	39

〈丑 17〉 第144回 國會 建設委員會 質疑 發言(제 5, 6, 7차)

交詢團體別	委員名	議事進行發言**		政策質疑中		書面資料要求		
		回數	%	回數	%	回數***	%	
與 黨	民主正義黨	金永先	0	0	3	1.5	—	—
	〃	朴在鴻	0	0	1	0.5	—	—
	〃	安秉珪	0	0	9	4.4	—	—
	〃	李敏燮	0	0	0	0	—	—
	〃	李雄熙	0	0	0	0	—	—
	〃	李鶴捧	0	0	0	0	—	—
	〃	張慶宇	0	0	10	4.9	—	—
	〃	黃潤鎭	0	0	6	2.9	—	—
小計		0	0	29	14.2	0	0	
野 黨	民主黨	金榮度	0	0	2	1	—	—
	〃	金柱鎬	0	0	20	9.8	1 (1)	25 (5)
	〃	宋鉉燮	2	10	3	1.5	1 (1)	25 (5)
	〃	辛基夏	4	20	0	0	—	—
	〃	李元泮	0	0	0	0	—	—
	統一民主黨	金東周	0	0	0	0	—	—
	〃	金沄桓	1	5	36	17.6	—	—
	〃	文峻植	2	10	3	1.5	—	—
	〃	崔二鎬	2	10	57	27.8	—	—
	〃	黃大鳳	0	0	1	0.5	—	—
民主共和黨	吳龍雲*	9	45	48	23.4	—	—	
	李麟求	0	0	6	2.9	1(12)	25(60)	
	崔戊龍	0	0	0	0	—	—	
〃	李海龜	0	0	2	1	1 (6)	25(30)	
小計		20	100	176	87	4(20)	100	
總計		20	100	205	100	4(20)	100	

註: 1) *는 委員長.

2) **는 豫算案 報告途中 質疑가 전혀 없었고, 報告前의 議事進行 發言回數임.

3) *** 괄호내의 수자는 質疑項目數임.

〈丑 18〉 第147回 國會 建設委員會 質疑 發言(제4, 5, 6, 8차)

交 涉 團 體 別	委 員 名	報 告 途 中 發 言		政 策 質 疑 中		書 面 資 料 要 求		
		回 數	%	回 數	%	回 數**	%	
與 黨	民主正義黨	金 永 先	1	0.8	4	8.5	—	—
	"	朴 在 鴻	0	0	0	0	—	—
	"	徐 廷 華	2	1.5	1	2.1	1(13)	14.3(19.1)
	"	李 敏 燮	0	0	0	0	—	—
	"	李 雄 熙	0	0	1	2.1	1 (5)	14.3 (7.4)
	"	李 鶴 捧	0	0	0	0	—	—
	"	李 海 龜	3	2.3	0	0	—	—
	"	張 慶 宇	0	0	0	0	—	—
	池 蓮 泰	0	0	3	6.4	1 (2)	14.3 (2.9)	
小 計		6	4.6	9	19.1	3(20)	42.9(29.4)	
野 黨	平和民主黨	金 榮 度	38	28.6	1	2.1	—	—
	"	金 柱 鎬	16	12	14	29.8	1(11)	14.3(16.2)
	"	宋 鉉 燮	0	0	0	0	—	—
	"	辛 基 夏	28	21.1	0	0	—	—
	"	李 元 滄	4	3	0	0	—	—
	統一民主黨	金 東 周	15	11.3	0	0	—	—
	"	金 沄 桓	6	4.5	0	0	—	—
	"	文 峻 植	0	0	3	6.4	1 (1)	14.3 (1.5)
	"	崔 二 鎬	12	9	0	0	—	—
	"	黃 大 鳳	0	0	1	2.1	1 (9)	14.3(13.2)
	新民主共和黨	吳 龍 雲*	8	6	17	36.2	—	—
	"	李 麟 求	0	0	2	4.3	1(27)	14.3(39.7)
"	崔 戊 龍	0	0	0	0	—	—	
小 計		127	95.5	38	80.9	4(48)	57.2(70.6)	
總 計		133	100	47	100	7(68)	100	

註: 1) *는 委員長. 2) ** 괄호내의 수자는 質疑項目數임.

〈丑 19〉 第151回 國會 建設委員會 質疑 發言(제7, 8, 9, 10차)

交 涉 團 體 別	委 員 名	報 告 途 中 發 言		政 策 質 疑 中		書 面 資 料 要 求		
		回 數	%	回 數	%	回 數**	%	
與 黨	民主自由黨	吳 龍 雲*	17	19.1	33	21.3	—	—
	"	金 東 周	3	3.4	3	1.9	—	—
	"	金 沄 桓	7	7.9	6	3.9	1 (6)	20(28.6)
	"	文 峻 植	0	0	0	0	—	—
	"	朴 在 鴻	0	0	0	0	—	—
	"	辛 相 右	1	1.1	1	0.6	1 (3)	20(14.3)
	沈 明 輔	1	1.1	1	0.6	1 (5)	20(23.9)	

	"	李雄熙	0	0	0	0	—	—
	"	李麟求	0	0	10	6.5	—	—
"	"	李致浩	0	0	3	1.9	—	—
	"	李鶴捧	0	0	0	0	—	—
	"	李海龜	0	0	8	5.2	—	—
	"	張慶宇	0	0	0	0	—	—
	"	池蓮泰	0	0	2	1.3	—	—
"	"	崔二鎬	16	18	28	18.1	1 (4)	20 (19)
	"	黃大鳳	1	1.1	0	0	—	—
	小計		46	51.7	95	61.3	4(18)	80(85.8)
野 黨	民主黨	金榮度	10	11.2	28	18.1	1 (3)	20(14.3)
	"	宋鉉燮	8	9	9	5.8	—	—
	"	辛基夏	21	23.6	8	5.2	—	—
	"	李元湃	0	0	12	7.7	—	—
	"	李協一	4	4.5	3	1.9	—	—
	小計	43	48.3	60	38.7	1 (3)	20(14.3)	
總計			89	100	155	100	5(21)	100

註: 1) *는 委員長. 2) ** 괄호내의 수자는 質疑項目數임.

<丑 20> 第156回 國會 建設委員會 質疑 發言(제3, 4, 5차)

交 涉 團 體 別	委 員 名	報 告 途 中 發 言		政 策 質 疑 中		書 面 資 料 要 求		
		回 數	%	回 數	%	回 數**	%	
與 黨	民主自由黨	金鎔采*	7	10.6	26	13.3	—	—
	"	金汧桓	10	15.2	8	4.1	—	—
	"	南載熙	0	0	0	0	—	—
	"	文峻植	0	0	0	0	—	—
	"	朴在鴻	0	0	0	0	—	—
	"	申河澈	1	1.5	0	0	1 (8)	25(23.5)
	"	沈明輔	0	0	1	0.5	1 (7)	25(20.6)
	"	李康熙	3	4.5	4	2	1(15)	25(44.1)
	"	李李雄熙	0	0	0	0	—	—
	"	李在淵	0	0	0	0	—	—
	"	李致浩	0	0	0	0	—	—
	"	李李鶴捧	0	0	0	0	—	—
	"	李李海龜	8	12.1	1	0.5	1 (4)	25(11.8)
	"	李張慶宇	0	0	0	0	—	—
	小計	42	62.1	67	34.2	4(34)	100 (100)	

野 黨	民 主 黨	金 榮 度	13	19.7	2	1	—	—
	"	宋 鉉 燮	2	3	43	21.9	—	—
	"	辛 基 夏	0	0	51	26	—	—
	"	李 協 雄	0	0	5	2.6	—	—
	"	鄭 金 光	5	7.6	28	14.3	—	—
	기 다	金 光 一	4	6	0	0	—	—
小 計			24	36.3	129	65.8	0	0
總 計			66	100	196	100	4(34)	100

註: 1) *는 委員長. 2) ** 괄호내의 수자는 質疑項目數임.